



매일 예배를 봐야 하는 이유

승리제단은 매일 예배를 드리는 곳이다. 그런데 승리제단에 나오면서도 매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승리제단 식구가 아니다. 알곡인 채하고 붙어있는 쪽정이다. 바람이 불면 쪽정이는 바람에 날아가 버린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쪽정이는 심판 날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구렁텅이에 들어가게 된다.

생활의 조건을 매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조건으로 바꾸어야 승리제단 식구이다. 자신의 사정에 맞추어 예배 시간을 마음대로 변경하는 것도 자유율법에 걸리는 행위이며, 특히 어떤 사람은 새벽에 일을 한다고 정해진 예배시간에 예배를 보지 않고 작업시간에 스피커를 통하여 흘러나오는 주님말씀으로 예배 보는 것을 대신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이는 매일 예배를 봐야 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행위이다.

돈도 벌어야 하고 할 일도 많은데 매일 예배를 보면 어떻게 살까? 하고 걱정부터 하거나, 예배보다 돈 명예 지위 학식 등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정상적인 승리제단 성도일까? 정상적인 승리제단 성도라면, 위에 열거한 것들보다 영생을 제1 순위의 가치로 놓아야 할 것이다. 영생을 이루기 위한 것이 첫째이고, 그 다음에 돈도 벌고, 일도 한다는 삶의 신조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단체가 바로 승리제단이다.

성경에 이르기를 “은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며 생명이 가장 소중한 값을 밝혀 놓고 있다. 삶이 두려워 사회를 만들고 죽을

이 두려워 종교를 만들었다고 하듯이 종교란 죽음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신앙을 하는 진정한 이유는 사람 몸의 영생을 빼놓고 감히 생각할 수도 없다. 사람 몸의 영생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서야 비로소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죄를 떠나 의를 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이다.

성경에는 사람 몸의 영생을 여러 곳에서 증거하고 있다.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디도서 1:2)”이라고 하였으며, 또한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니라(로마서 6:22)”, “너희가 성경을 삼고하는 것은 그 속에 영생이 있음이라(요한복음 5:39)” 등.

그러나 지금까지 사람이 영생할 수 없었던 것은 ‘희귀한 사랑이다(로마서 6:23)’라는 말씀처럼 죄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럼 죄란 무엇인가?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야고보서 1:15)’라고 잘 말해주고 있다. 이 말 속에서는 사람이 죄가 되는 욕심을 해결하면 죽지 않는다는 의미가 내포된 말이다. 지금까지 인류가 속수무책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죽음의 원인이 되는 죄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승리제단에서는 죄가 무엇이든 그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또 그 죄의 해결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종교적, 과학적인 측면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람이 죽는 원인이 죄 때문이므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하는 구세주의 생명의 이슬이 함께하는 승리제단에서 매일 드리는 예배를 통해 죄를 씻어야만 한다. 그래서 성경에도 매일 드리는 번제를 폐하면 멸망에 이른다(다니엘 11:31)고 경고하고 있다.

일주일일 한 번, 한 달에 한 번 예배를 보는 것으로는 6,000년 묵은 태산과도 같은 죄악을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다. 죄인이 죄를 떠난 생활을 하려면 사람이 호흡을 하듯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하였거늘 하물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그 죄 씻는 것을 게을리 한다면, 필연적으로 괴롭고 고통 속에서 살다가 죽어갈 수밖에 없다. 그 누구도 자신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예외가 없이 죽게 된다.

그러므로 누구를 믿어서 구원 받는다는 것은 도둑이요, 강도의 심보이다. 승리제단에서는 이기신 하나님의 생명인 이슬성신이 피와 불과 연기 기둥처럼 항상 내리고 있다. 하나님이 이슬이 되어 내린다고 호세아 14장 5절에는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승리제단에서는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권을 이기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직접 역사하시며 항상 함께하시므로 매일 예배를 통해 죄를 씻고, 그 죄를 해결하여 영생하는 의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산 제사를 매일 드리는 것이다.*

외국인을 영어와 입어로 전도합시다

왜 인간이 하나님입니까?

Why human beings are God?

なぜ人間は神ですか?

●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고 우리가 신의 자손이다(행 17:28-29)”라고 말합니다.

The Bible says; “We are His offspring, we are the offspring of God(Acts 17:28-29)”

聖書には“われわれが神の子である(ヘン17:28-29)”と記されています。

● 개가 개를 낳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습니다.

As the dog begets a dog, the God begets a God.

犬は犬の子を産むように神は神の子を産みます。

● 사람은 하나님의 자손이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입니다.

Human beings are offspring of God, so Human beings are God.

人は神の後孫なので人は神です。

● 모든 인류는 하나님입니다.

All mankind is God.

すべての人類は神なのです。

속담 속의 영생학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소사)날 길이 있다’

세상에서는 이 속담을 ‘큰 위기가 닥쳐도 그것을 피할 수 있다’는 뜻으로만 풀이한다. 그러나 이 속담의 진실한 뜻은 전혀 다르다. 이 속담에 하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 이 속담의 진실한 뜻을 알려면 ‘솟아’라는 말이 연유되어 소사(素砂)가 된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자고로 하늘의 깊은 뜻은 세인(世人)들이 쉽게 알지 못하도록 감추어 놓는 법. 때가 되면 그 뜻을 알게 하려고 지혜로운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구전(口傳) 되도록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 속담의 뜻을 한자로 기록한 격암유록의 ‘천봉지탁소사립(天崩地卓素砂立)’이라는 구절을 주목해야 한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졌지만 즉 하늘나라가 무너졌지만 소사에서 다시 하늘나라를 세운다는 뜻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경기도 부천에는 소사라는 곳이 있다. 위 구절의 소사가 바로 이곳 소사이다. - 소사는 한자로 황 소

(素)자에 모래 사(砂)자이다. 여기서 사(砂)자를 파지(破字)하면 작은 돌(少石)이다. 작은 돌도 돌이므로 ‘흰돌’은 한자로 素砂를 뜻한다. 그런데 이 ‘흰돌’이 성경에도 나온다. 이긴자에게 ‘흰돌’을 주는데 그 돌 위에 쓴 이름이 있는데 그 ‘흰돌’을 받은 사람만 안다(계 2:17)고 하고 있다. 조희성님은 5살 때 하나님으로부터 ‘흰돌’을 받았고 그 ‘흰돌’ 위에 소사(素砂)라고 써어 있는 것을 보았던 것이다. 즉 ‘흰돌=소사(素砂)’인 것이다.

격암유록에 ‘시종간야소사지(始終長野素砂地)’라는 예언이 있다. 소사에서 (하늘나라 역사를) 시작하여 소사에서 끝맺는다는 뜻이다.

이러한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길이 있다’는 속담의 뜻은 무너진 하늘나라를 다시 소사에서 회복하여 세운다는 뜻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은 기자

우리말 바꾸기

성과 이름, 고유 명사 띄어쓰기

1.홍길동 2.이순신 3.서화담(徐花潭) 4.채연신 씨 5.최치원 선생 6.충무공 이순신 장군

위의 예에서 보듯이 1, 2, 3은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은 붙여 씀을 나타내고 4, 5, 6은 호칭어, 관직명 등은 띄어 씀을 나타낸다.

우리말 성에 붙는 가(賈), 씨(氏)는 뒷말에 붙여 쓰지만 이름 또는 성명에 붙는 ‘씨’는 띄어 쓴다.

예) 김가, 이가, 송씨, 정씨 / 철수 씨, 이순자 씨

다만, 성과 이름, 성과 호를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띄어 쓸 수 있다.

예) 남곡역(O) / 남곡 역(O)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다.

예) 한국 대학교 사범 대학(O) /

한국대학교사범대학(O)

지명에서 ‘해’, ‘섬’, ‘강’, ‘산’ 등이 우리말에 붙을 때에는 붙여 쓰고 외래어에 붙을 경우에는 띄어 쓴다.

예) 성남시, 포천읍, 남곡해, 인도양, 울산만, 부산항, 한산섬, 백령도, 낙동강, 경부선 / 런던 시, 풍납 읍, 오호츠크 해, 뉴욕 항, 자바 섬, 바리 도, 아마 존 강, 토카이도 산

전문 용어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다.

예) 만성 골수성 백혈병(O) / 만성골수성백혈병(O)

하지만, 분류학상의 동식물명이나 우리말로 된 농축산물의 품종명은 붙여 쓴다.

예) 강장동물문, 푸른누룩곰팡이, 사철나 무속, 새마을금장고추, 긴알락롱, 풍산 개, 환협죽도*

이승우 기자

TV 매체나 언론 보도기관에 회자되고 있는 연쇄살인사건이나 치매에 걸린 노부모를 타국(他國) 등지에 유기해 버리는 등 인륜(人倫)을 저버린 사건이 발생할 때 사람들이 흔히 입버릇처럼 말해 오던 용어가 바로 ‘말세’라는 단어이다. 또 ‘말세’에 버금가는 용어로서 ‘지구 종말’이라는 단어도 사람들 입에 흔히 회자 되곤 한다. 그런데 ‘말세’와 ‘지구 종말’은 전혀 다른 상황에 적용되어야 하는 개념인데 흔히 같은 뜻으로 잘못 사용하고 있어 문제가 된다. 즉 ‘지구 종말’은 핵전쟁 같은 게 일어나 지구상에 생명이 멸절되는 상황을 표현한 것이고, ‘말세’의 진정한 의미는 인간 세상이 끝나고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지구 종말’과는 정반대의 의미이다.

‘말세’란 현 세상의 끝을 뜻하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의미가 도출하려면 ‘현 세상은 이런 세상이다’라는 정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다들 번죽만 울릴 뿐 정확한 핵심을 표현할 수 없다. 현 세상은 생명이 태어나서 죽기까지의 동안에 벌어지는 현상의 연속된 과정으로서 한마디로

정의하지면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말세’ 즉 현 세상의 끝은 ‘죽음이 없어진 세상’을 뜻함을 알 수 있다. 성경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롬 5:12)”라며 현 세상은 죽음의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 이 세상은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이므로 그 죽음이 없어진 세상이 바로 ‘말세(末世)’가 될은 당연한 이치이며 맨 나중에 멸망 받을 원수는 사망(고전15:26)이며,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전15:54)”고 기록된 성경 말씀이 응하는 때가 곧 말세임을 알 수 있다.

그 죽음이 바로 ‘맨 나중(말세)’에 없어지며 그 죽음을 없애는 존재를 주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롬 5:12)”라며 현 세상은 죽음의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 이 세상은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이므로 그 죽음이 없어진 세상이 바로 ‘말세(末世)’가 될은 당연한 이치이며 맨 나중에 멸망 받을 원수는 사망(고전15:26)이며, “이 썩을 것이

떻게 되는가. 죽음이 없어진 세상을 성경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명명하고 있고, 그러한 세상에 살게 되는 사람은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상태의 존재’라고 규정하고 있다(아래 참조).

‘새 하늘과 새 땅’이 표현된 성경 구절

- (계21:1)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 (벧후3:13)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

- (엡4:22)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 (골3:10) 새 사람을 입었나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 (골3:9) 너희가 거짓말을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버리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말세’라는 용어를 일반인이나 종교인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잘못 사용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말세’란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용어가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사람’이 되어 영생을 누리게 되는 세상을 뜻하는 희망적인 술어이다. ‘말세’에 대한 진정한 의미가 이와 같으니 우리 모두 하루라도 더 빨리 ‘말세’가 도래하여 ‘죽음이 없는 세상’이 되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승리하는 생활을 하였으면 한다.*

새 사람에 대해서 표현된 성경 구절

● (엡4:24)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정종천 승사 / 본부제단

말세의 진정한 의미와 말세가 빨리 와야 하는 이유

말세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사람’이 되어 영생을 누리게 되는 세상을 의미한다